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31

JCCT 2024-5-6

이스라엘의 전쟁억제 실패원인과 한국의 안보전략적 함의

Analysis of the Causes of Israel's Failure to Deter war and Implications for Korea's Security Strategy

배일수*, 정희태**

Il Soo Bae*, Hee Tae Jeong**

요약 2023년 10월 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 상대로 대규모 기습공격을 감행하며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날은 로켓 공격과 더불어 패러글라이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다영역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직접 침공하였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을 허용한 원인이 무엇이고 사전에 전쟁을 억제하지 못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시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억제는 능력과 의지, 의사전달, 신뢰성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능력과 의지가 충분하고 그동안 응징적 억제로 의사전달이 충분히 되었지만 이번 전쟁을 억제하지 못한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확장억제력 향상, 한미 양국의 억제 의지 전달, 억제할 능력과 실행력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요구된다.

주요어 : 이스라엘, 하마스, 억제, 의사전달, 신뢰성

Abstract On October 7, 2023, Hamas launched a large-scale surprise attack against Israel and war broke out. On this day, in addition to supplying rockets, they directly invaded Israeli territory in multiple areas using parariders and motorcycles. Considering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meaningful to consider why Israel allowed Hamas to attack and why it failed to deter the war in advance. Deterrence can only be successful if it is supported by capability, will, communication, and credibility. Although the capability and will were sufficient, and the communication through punitive deterrence had been sufficiently communicated, the failure to deter this war was problematic in terms of credibility. In order to increas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s threat, we need to improve customized extended deterrence, convey the will of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deter, and increase credibility in deterrence capabilities and execution ability.

Key words : Israel, Hamas, Deterrence, Communication, Credibility

1. 서론

2023년 10월 7일 새벽(현지시간) 오전 6시 30분, 가자지구에 무장정파 하마스가 5,000-7,000발의 드림통으로 만든 수제 로켓과 까삼 로켓을 이스라엘 남부 영토에 동시 다발적으로 기습공격하였다. 동시에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 근교에서 유대교 행사인 '슈퍼노바

초막절 음악제 행사' 중에 하마스의 특수작전부대가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 분리 장벽을 넘어 이스라엘 영토에 직접 침투했다. 이곳에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260여 명이 사망하였으며, 가자지구와 인접한 22개의 남부지역에서도 민간인들을 공격하여 1,300여 명을 학살하고 240여 명을 인질로 납치하였다 [1]. 10월 8일 이스라엘 네타나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정희원, 육군대학 전략학과 교수 (제1저자)

**정희원,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3월 5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10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0일

Received: March 5, 2024 / Revised: April 10, 2024

Accepted: April 20, 2024

**Corresponding Author: ilsoo45@naver.com

Dept. of Strategy, ROK Army College, Korea

전쟁을 선포하고, 하마스에 대응하는 ‘철검(Iron Swords) 작전’으로 응징적 보복 공습을 개시하였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하 이-하 전쟁)은 100일을 넘기고 있으며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 헤즈볼라의 가세로 전쟁은 더욱 복잡하게 중동 전역으로 확장하며 장기화할 조짐이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학계에서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연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정치학 이론을 배경으로 전쟁을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한 것은 미진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킨 원인을 분석한 연구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억제하지 못한 분석이다. 전쟁원인에 대한 연구는 첫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역사, 영토, 종교, 민족에 대한 복합적인 갈등이 전쟁의 촉발요인, 근본원인으로 작동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이스라엘이 네타나후 취임 이후 사법제도 개정 추진으로 인해 국민여론 분란이 발생한 정치적 혼란을 활용하여 하마스가 공격했다는 것이다. 셋째, 세력균형과 정치적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가 중동지역의 세력균형 균열에 따른 존재감 회복과 하마스 정당의 정치적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이다.

이스라엘이 전쟁 억제 실패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첫째, 이스라엘의 정보판단 실패이다. 둘째, 이스라엘의 첨단무기 체계에 의존한 채 경계의 소홀이다. 셋째, 이스라엘 내부 혼란이 하마스에게 침공의 틈을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전쟁 억제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또한 어떠한 노력의 부족으로 전쟁이 발발하였는지에 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마스 침공을 왜 억제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억제의 성립요건’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더불어 전쟁 진행 중인 한반도에서 한국의 대북 억제 가능성을 전망해보고, 억제 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안보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이스라엘은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목표와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선제공격’이다.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을 채택하는 이유는 좁은 영토 때문이다. 둘째, ‘적 영토로의 전쟁지역의 이전’이다. 그리고 ‘전쟁 발발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전쟁 억제 능력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노력하는 억제라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본 연구에서 억제 개념을 정의하고, 억제 실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억제 성립조건 3가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억제의 개념

억제(deterrence)는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단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어원은 라틴어 ‘terrence’로 ‘공포심’, ‘놀라게 하여 멈추게 하다’이다. 키신저(Henry. A. Kissinger)는 “상대방의 기대이익과 예상손실 간 균형이 맞지 않도록 위협을 가해 상대방이 특정 행동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즉, 억제는 잠재적 침략국이 침략을 감행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위협으로 공포심을 갖게 하여 침략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2].

2.2 억제의 성립요건

억제(deterrence)는 잠재적 침략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침략 이전에 그 의지가 없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 침략국의 침략 의지를 꺾기 위해선 억제의 의지가 침략국에게 충분히 전달되어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 역시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억제의 성립조건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키신저는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한 요건으로 억제에 사용되는 힘, 이것을 사용하려는 의지, 이들 두 요소에 대한 상대적·공정적인 평가로 구분하고 이러한 요건 중에 한가지라도 결여될 경우에는 실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3가지 억제 성립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능력(Capability)이다. 능력은 억제자가 잠재적 적대국의 군사전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군사력과 잠재적 적대국이 군사전략 목표를 가지고 행동할 경우에 발생할 손실이 예상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의미한다. 즉,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가? 감당 못 할 피해를 줄 수 있는가? 에 대한 요건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군사력을 바

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억제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수반한다면 상대방에게 보복할 방법이 윤택하여 억제의 성공 요인은 높아진다.

둘째, 의사전달(Communication)이다. 이는 '상대방에게 응정보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경우 무슨 일을 당할 것이다'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전달은 나의 능력을 과시하여 적으로 하여금 침략할 수 있는 의지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억제력이 충분하여 적이 침략 시 침략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침략 후 감당해야 할 손실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잠재적 침략국이 인지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를 상대국이 인지하지 못한다면 억제는 무의미하게 된다.

셋째, 신뢰성(Credibility)이다. 이는 '능력과 의지를 잠재적 침략국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상대방을 납득시키기 위해 위협을 뒷받침하는 실행능력의 능력과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위협의 내용 자체도 상대방에게 수긍이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허풍으로 인해 그 억제전략이 신뢰성을 잃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 외 억제 성립조건으로 합리성과 대안이 있다. 합리성은 잠재적 적대국이 이해득실의 타산적 계산을 할 수 있는 합리적 과정을 말한다. 대안(Option)은 상대방이 의도한 행위를 포기하는 대신 명예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른 길을 열어 놓는 조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성과 대안은 제외하고 능력, 의사전달, 신뢰성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해 왜 전쟁 억제에 실패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이스라엘의 전쟁억제 실패요인 분석

이스라엘의 전쟁억제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국가의 위협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군사전략과 전쟁 대응개념을 무엇으로 하였는지를 통해 큰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사력 건설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군사력 운용개념이 무엇인지를 통해 전쟁 억제를 위한 능력을 어떻게 갖추고자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들의 전쟁억제에 대한 의지를 상대국에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상대국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전쟁 억제를 위한

노력과 그리고 그 노력의 한계가 어디서 나타났는지를 통해 실패 요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3.1 능력(Capability) 차원

능력 차원에서 잠재적 침략국을 억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소는 충분한 수준의 대응 개념 정립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이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전쟁 억제를 명시하고 이스라엘이 전쟁 억제를 위해 정치적·군사적인 노력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군사 및 전쟁전략이 4차 중동전쟁을 교훈 삼아 전쟁에서의 '공세성 유지', 위협에 대한 '선제공격' 등 공세적 요소가 강조된 전략개념을 선택하고 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적대국에 대한 위협에 강하고 충분한 대응을 할 개념이 성립함으로써 전쟁 억제를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표 1 이스라엘의 국가목표와 군사전략
 Table 1. Israel's national goals and military strategy

구분	주요 내용
국가 목표	·이스라엘 존립 보장, 영토보존과 시민안전 보호 ·국가, 민주국가, 유대인의 고향으로서 가치 유지 ·이스라엘의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보장 ·주변국과 평화를 추구하며 국제적, 지역적 위치 확대
전쟁 전략	·선제기습, 속전속결, 적의 영토에서 전쟁수행
국방 정책	·기술적, 군사적 우위로 적은 예산으로 최대 안전확보 ·확고한 전쟁 억제 능력 유지
군사 전략	·방어보다는 우세한 공군력 활용 선제공격 개념 ·공격당할 시 전장을 신속하게 적국 영토로 이동 ·전쟁 초기 적국 영토로 전쟁지역 전환 자국 피해 최소화

이스라엘은 2015년 국가안보 독트린을 통해 이란, 레바논 시리아 등의 국가와 헤즈볼라, 하마스와 같은 준국가 조직, 테러조직 등을 직면한 위협으로 평가했으며, 이어 2022년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팔레스타인 테러리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하마스에 대해서는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파괴될 때까지 싸울 것을 맹세한다. 미국,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이스라엘은 모두 하마스를 테러조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약 10여 년 전부터 하마스를 국가적 위협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국가적 위협에 대응한 비대칭전에 대한 개념도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적의 위협에 대한 대응개념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프랑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감행하면서 해외 무기 의존의 위험성을 충격적으로 자각하게 되면서 독자적인 기술 축적과 함께 미국 등 해외 방위산업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국토의 협소성과 적대국들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국가의 전략적 중심이 기습받을 수 있는 취약성, 상비병력이 부족하다는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을 강화하여 필수 무기체계를 확보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전략무기, 우주무기, 육·해·공군 무기를 전략화하였고, 그 중 소형 정찰위성, 탄도미사일 및 미사일방어체계, 각종 레이더 및 센서체계, 전자전 장비, 무인 항공기 등은 세계 첨단 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아랍국가들을 압도하고 무기체계 등 능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4].

3.1 의사전달(Communication) 차원

의사전달은 상대국에게 억제 의지와 억제 능력을 얼마나 적시적이고 명료하게 전달하는지에 따라 그 억제 정도가 달려있다. 억제 능력과 실행 의지가 상대국에 전달되었을 때, 상대국은 합리적인 손익계산의 내용이 다시 억제자에게 돌아오는 정보의 순환과정을 거치게 된다. 앞서 분석한 능력 차원에서 아무리 필요 충분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상대측이 바람직한 수준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들이 전달되지 않거나 왜곡될 때 소기의 억제효과를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억제국은 억제 의지와 능력을 강도 있게 보여야 피억제국을 설득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치적 수단으로써 국가 대표의 공개 성명, 독트린적 위협, 국가목표 공개가 있으며 군사적 측면에서 국방 및 군사목표, 작전계획의 일부 공개, 각종 무기실험, 훈련 등이 있겠다[5].

먼저 정치적 수단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국가목표와 국방정책, 군사전략, 전쟁전략 등을 제시하면서 전쟁 억제를 위한 선제적이고 기습적인 공격개념을 공개했다. 또한 공개적인 독트린 위협도 지속해서 있었다.

군사적 차원에서의 의사전달은 작전계획 일부를 공개하거나 각종 훈련 등을 통해 적시적이고 명확하게 지

속해왔다. 이란의 핵시설 타격을 목표로 하는 합동 군사훈련을 지중해에서 실시하거나 미, 영, 독, 프 등 8개국 공군이 이스라엘에서 합동 훈련을 하면서 전략적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억제 의지 및 억제 능력에 대한 의지 표명은 네타나후 정권 이후 더욱 강경하게 드러났다. 다수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차별적인 법안과 2023년 1월부터 지속된 공습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23년 7월 네타나후 총리는 "누구든 이스라엘인을 해치려는 자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 또는 무덤뿐이며, 끝까지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며 직접적이고 강력한 군사력 사용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의사전달 차원에서 상대국에게 응징 보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 정확하게 알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3.3 신뢰성(Credibility) 차원

신뢰성 차원에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시성, 즉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의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유성과 의사소통 즉, 상대국이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는 소통이 중요하다. 억제국이 보복으로 제시한 폭력의 수준이 너무 낮으면 이를 집행할 신뢰성은 높지만, 억제 효과는 매우 낮을 것이다. 반대로, 보복으로 제시된 폭력의 수준이 너무 높아지면 실제로 집행할 신뢰성이 매우 낮아진다. 상대국이 억제국의 역량과 의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이는 객관적 현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심리 현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결국 상대국이 억제국을 과소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일련의 사례들이 발생한다면 결국 억제 의 성립조건에 대한 신뢰성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은 의사전달은 정치적·군사적으로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능력 차원에서는 상대국으로 하여금 과소평가할 여지를 주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의 명중률을 90%에 달한다고 주장하지만, 2018년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2018년 하마스가 발사한 박격포와 로켓포 370발 중 60발 만이 격추됨에 따라 요격률이 30~40%에 불과하였고, 2019년에는 690발의 미사일 중 240발만을 방어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평가는 하마스가 공격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 이스라엘이 충분한 방호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고 하마스도 하여금 공격하고자 하는 유혹을

압도하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억제 성립조건 중 신뢰성에 대해 피억제국이 이스라엘이 가진 역량과 도발 시 대응할 위협에 대해 상대방이 수궁할 수 있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남한을 주적으로 운운하며 전쟁을 통해 평정할 것을 수사적 발언을 하고 있다. 핵 투발 수단 3종(ICBM, IRBM, SRBM)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을 실험하였고, 궁극적으로 2030년대 말 무렵 핵탄두 300여 기 정도 보유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국국방연구원(KIDA)는 예측하고 있다[6]. 러-우 전쟁과 이-하 전쟁을 교훈삼아 억제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든지, 억제할 능력과 의지는 갖추고 있으나 신뢰성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북한에 전쟁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억제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는 동시에 신뢰성 제고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V. 결론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억제 실패요인을 억제 성립조건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전략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은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현존하는 적인 북한에 대한 전쟁억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맞춤형 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와 자주국방으로 억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첫째, 맞춤형 확장억제전략의 수행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북한의 비대칭 수단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맞는 전략개념과 지휘통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북한을 억제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정확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전략자산 진개의 정례화 및 제도화, NCG의 핵운용 시나리오 완성과 연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는 억제 의사전달을 가장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북한을 억제할 능력과 실행할 의지에 대한 신뢰성 제고이다. 우리가 가진 억제 수행능력을 북한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발사의 원편'에서 비대칭수단을 무력화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노골적으로 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이전에 핵잠수함을 전개하고 핵운용에 대한 연합연습 및 훈련함으로써 그

의지와 능력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References

- [1] Wikipediain, "Israel-Hamas War,"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8A%A4%EB%9D%BC%EC%97%98-%ED%95%98%EB%A7%88%EC%8A%A4_%EC%A0%84%EC%9F%81 (Search date; 2024.1.26.)
- [2] M. S. LEE, "A Theoretical Study on Deterrence and Crisis Stability," *Defense policy research*, Vol. 38-2, No. 136. pp. 10-15, 2022
DOI: <http://dx.doi.org/10.22883/jdps.2022.38.2.001>
- [3] K. H. Cho and S. P. Hong, "Operation and construction of Israeli air force against military threats from neighboring countrie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No. 128, pp. 417-419, 2023.
DOI: <https://doi.org/10.29212/mh.2023.128.401>
- [4] C. I. Chung, "Israel's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and Insights for Korean Armed Forces," *Research Institute for Strategy*, No. 83, pp. 249-258, 2021. DOI: <https://doi.org/10.46226/jss.2021.03.28.1.233>
- [5] S. J. Cho, S. S. Choi, S. S. Woo, K. W. Kim, S. h. Lee, and S. H. Park, "A Case Study of Cognitive Warfare in the Israel-Palestinian Conflict in 2021,"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6, pp. 537-542, November 30, 2022.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537>
- [6] The JoongAng, "We will increase the amount of nuclear weapons"… North Korea's Kim Jong-un's three military tasks for next yea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8795> (Search date; 2024.1.26.)

※ 이 연구는 2024년도 서경대학교 교내연구
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